

사회적 일자리(기업)의 가치평가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정영호* · 노대명** · 고숙지***

사회적 유용성 및 공익성을 지니며, 수익의 공평한 배분과 사회환원을 실천하는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에 상당한 기대가치(또는 편익)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기업)가 지니는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존재가치를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이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의 개인별 기대가치(편익)는 10,782원이며, 전체 지불의사액은 3,589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존재가치에 기반한 금액이 조성되어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결과, 생산유발액은 약 2,278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3,255억원, 그리고 취업유발인원은 1일 기준 약 10,2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일자리(기업)에 대한 보다 명료한 의사결정기준에 관한 토대를 제공해 주며, 이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새로운 변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용어: 사회적일자리(기업), 가치평가, 조건부가치측정법, 산업연관분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위원

I. 서론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다차원적인 소외 및 빈곤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유경준, 2003; 이정우·이성립, 2001) 사회복지 서비스를 비롯해 삶의 질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실업과 삶의 질 저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2003년부터 노동부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며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사회적 일자리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¹⁾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 기업,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취약계층의 취업촉진과 수익의 사회환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²⁾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사업을 통한 기대편익 또는 기대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작업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 유용성 및 공익성을 가진 일자리이며, 사회적 기업은 수익의 공평한 배분과 사회환원을 실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상

당한 기대가치(또는 편익)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경제에 주는 가치에 주목하여 가치 또는 편익을 분석한다. 본 고에서 고려하는 기대가치 또는 편익에는 우선, 사회적 기업이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 유발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취업유발효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편익 이외에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이 지니는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존재가치를 평가하여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가치의 기대편익은 사회적 일자리의 공급으로, 각 개인의 만족도나 후생의 증가분을 화폐액으로 환산한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공급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수익이 사회로 다시 환원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개별 시민들의 만족감 또는 사회적 효용을 화폐액으로 환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치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의 존재가치를 파악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인의 기대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³⁾ 그리고 CVM의 분석결과로 도출된 개별 지불의사액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여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존재가치를 추정하였다. 이와 함께, 존재가치에 기반한 금액이 조성되어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파급되는 생산가치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3) 조건부가치측정법은 환경재 평가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1)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2003년도 시행지침」, 2003.

2)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일자리'로,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거나, 자연환경을 보호하거나, 저소득층 질환노인에게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복원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됨.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영역을 사회경제, 연대경제, 제3섹터라고 함(노대명, 2001).

II.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기업)의 가치 분석

1. 존재가치 분석을 위한 평가방법

사회적 일자리(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가하는 가치 분석을 위하여 본 고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한다.⁴⁾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요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가치를 측정하였다. 즉,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의 존재가치(existence value) 또는 비사용가치(non-use value) 측정을 시도하였다.⁵⁾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방법으로 헤도닉가격기법, 여행비용법, 회피행위접근법, 조건부가치평가법, 다속성효용평가법, 생산함수접근법, 조건부순위접근법, 손실함수접근법, 최소절대편차법 등이 있는데(표 1 참조), 본 고에서는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은

- 4)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유용성을 화폐가치로 분석하여 가치의 대소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토대가 됨.
- 5) 이러한 존재가치 즉,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시장을 관찰하는 현시선호법(Revealed Preference: RP)과 가상시장을 이용하는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SP)으로 구분됨. 현시선호법은 개인 행동결과로부터 타인의 선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술선호법에 비해 무임승차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나타나지 않은 속성은 평가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김선희 등, 2004). 진술선호법은 설문조사에 의해 개인의 선호를 직접적으로 묻는 방법으로 임의의 속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묻는 방법에 따라 결과에 다른 편차가 발생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음.

Ciracy-Wantrup(1952)에 의해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의 가치를 소비자에 대한 질문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고 처음에 제시하였고, Davis(1963)가 이를 실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CVM을 이용한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기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방법은 거의 모든 비시장재화의 평가에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 광범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여준호, 2003).

CVM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다시 말해서, 가치측정의 대상이 되는 재화와 관련한 시장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모집단을 대표하는 설문 응답자에게 제시한 뒤,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답변자료를 이용하여 그 재화의 가치를 추론하는 방법이다(이준구·신영철, 2000). 이 평가방법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평가를 출발점으로 하여 자원의 가치를 직접설문을 통해 구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진다. 아직 공급되고 있지 않은 재화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재화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경제이론에 부합하여 직접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연구자가 주어진 자료로부터 편익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없는 가정들을 설정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가상적 상황의 설정과 이에 대한 지불의사 설문방식에 따라 추정의 신뢰성이 좌우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가치평가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용되어 그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학문적 범위 내에서의 연구에 한정되지 않고, 1980년대 이후로는 미국의 소송과 관련된 가치측정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부서, 국제기구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추천되고 있다.⁶⁾ 이와 같이 응용영역 및 활용도, 유용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

6) 1990년대 초반에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Kenneth Arrow와 Robert Solow를 의장으로 한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패널(panel)은 CVM의 blue ribbon이라 불리는 'NOAA 보고서'를 통해 "CVM은 비사용가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히 믿을 만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주요 정부관서, 국제기구, 연구소 등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게 되었음.

에서는 CVM을 이용하여 가치를 측정하고자 한다.

〈표 1〉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

구 분	평가방법
현시선호법(RP) (직접시장 관찰)	· 헤도닉가격법(Hedonic Price Method)
	·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 회피행동분석법(Averting Behaviour Approach)
진술선호법(SP) (가상시장 이용)	·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

자료: Freeman III, A. AM, Th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 Resource Values: Theory and Methods, Resource for the Future, Washington D.C.

2. 설문조사 설계 및 방법

1) 설문 대상 및 설문 내용

사회적 일자리(기업)의 편익측정이라는 조사목적에 바탕으로 응답자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인식수준, 호감도와 사회적 일자리의 참여의향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추가항목으로 사회서비스의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에 관한 문항으로 응답자의 사회서비스 수요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성, 연령, 가구원수, 가구소득, 직업 등의 문항을 구성하여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의 존재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을 위해 기부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들은 후, 지불의사가 있다면 얼마를 기부할 것인지에 관해 기부액을 개방형으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 설문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방법에는 전화설문법, 일대일면담법, 우편설문법 등이 있는데, 본 서에서는 전화설문법을 적용하였다. 전화설문법은 소요비용이 일대일 면담법보다 적게 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응답자의 주위가 분산되기 쉬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여준호 등, 2003). 이와 같이 설문응답자의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내용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간병서비스,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서비스,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교사 배치, 환경을 위한 재활용서비스와 같이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였고,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 및 종류,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된 정부의 계획도 언급하여 응답자의 동기 및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서비스 종류의 예를 설명해 주어 이것이 지니는 가치를 생각해 보도록 한 이후에 직접설문법(open-ended question) 방식을 활용하여 응답자들이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05년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설문대상 수인 1000건 중에 970명이 조사에 응하였다(표 2 참조).

〈표 2〉 설문기간 및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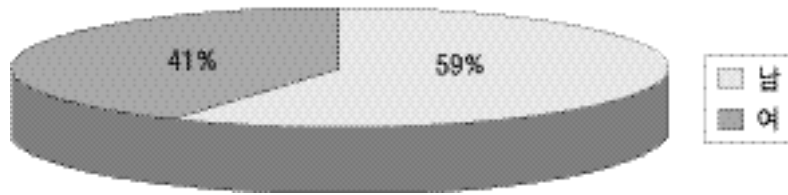
조사기간	2005. 4. 18~2005. 4. 25(8일간)
총 설문대상 수	1000건
총 응답 수	970건
응답률(%)	97.0

3) 설문조사결과와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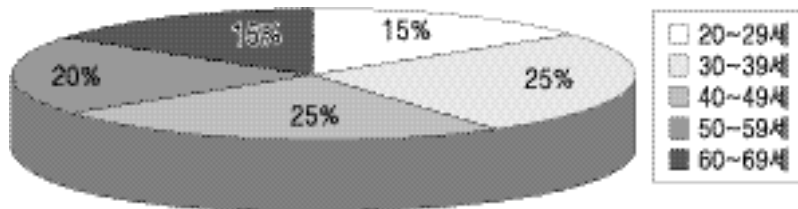
① 설문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설문 응답자를 성별로 분류하여 보면, [그림 1]과 같이 남자가 59%, 여자는 41%였다.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39세와 40~49세가 전체 970명 중에 각각 2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50~59세가 20%를 차지하였고, 20~29세와 60~69세에서 각각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참조).

[그림 1] 응답자의 성별 분포



[그림 2]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설문응답자의 가구원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4명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구원 수가 3명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0.3%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한편, 설문응답자 가족 모두의 소득을 합한 가정의 월평균 총소득은 응답자의 27.2%가 200~299만원이라고 응답하였고, 25.8%가 100~199만원이라고 응답하였다(표 3 참조).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11.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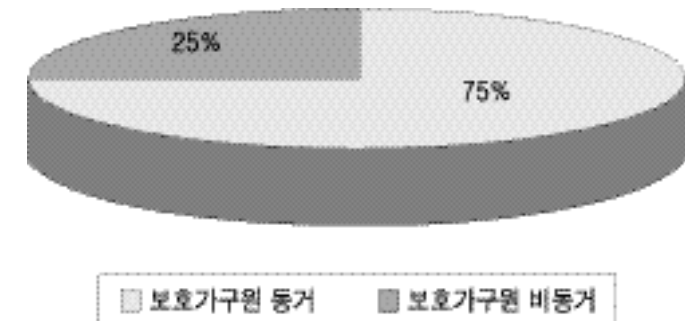
반면,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4.9%로 나타났다.

<표 3> 가구원 수 및 가구 소득 분포

가구원 수	응답 수	(%)	가구 소득	응답 수	(%)
1	56	5.8	0	48	4.9
2	119	12.3	1~99만원	101	10.4
3	197	20.3	100~199만원	250	25.8
4	425	43.8	200~299만원	264	27.2
5	127	13.1	300~399만원	141	14.5
6	37	3.8	400~499만원	44	4.5
7이상	8	0.8	500만원 이상	108	11.1
소계	969	99.9	소계	956	98.6
결측값	1	0.1	결측값	14	1.4
계	970	100.0	계	970	100.0

가구원 중에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2~5세), 장애아동, 질환노인, 장애인, 외상환자 등의 가족 및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원 수는 75%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보호가구원 동거유무



응답자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주부, 고령자, 학생 등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가 5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상용직

근로자가 18.7%, 자영업자가 13.0%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그리고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는 3.4%, 3.5%이며, 실업자가 7.0%를 차지하였다.

〈표 4〉 직업분포

직업	응답수	(%)
상용직근로자	181	18.7
임시직근로자	33	3.4
일용직근로자	34	3.5
고용주	7	0.7
자영업자	126	13.0
무급가족종사자	16	1.6
실업자	68	7.0
비경제활동인구	504	52.0
소계	969	99.9
결측값	1	0.1
계	970	100

② 설문 응답자의 인지 및 태도 특성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들어 보았거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표 5〉와 같이 37.5%가 잘 모른다는 응답을 하였고, 33.5%가 들어본 정도라고 응답하여, 시민들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인지도 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8.8%가 호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호감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18.4%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가 만약 설문 응답자에게 제공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보통이 21.9%, 참여하지 않겠다가 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적 일자리에 관한 인식 및 호감도 분포

구분		응답수(n=970)	(%)
인지도	잘 안다	55	5.7
	들어본 정도다	325	33.5
	잘 모른다	364	37.5
	전혀 모른다	226	23.3
호감도	매우 호감이 간다	178	18.4
	호감간다	473	48.8
	보통이다	260	26.8
	호감이 안간다	51	5.3
	전혀 호감이 안간다	7	0.7
	결측값	1	0.1
참여의향	꼭 참여하겠다	87	9
	참여하겠다	437	45.1
	보통이다	212	21.9
	참여하지 않겠다	192	19.8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	41	4.2
	결측값	1	0.1
계		970	100.0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자원마련에 기부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기부 의사가 있다면 어느 정도를 기부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 기부 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에 천원 초과에서 만원 사이가 27.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표 6 참조). 그 다음으로는 천원 이하가 12.2%, 만원 초과에서 오만원 이하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금액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0원과 백만원이었으며, 최빈값은 0원(51.1%)이었다. 그리고 산술평균값은 10,782원으로 나타났다.

〈표 6〉 지불의사금액 구간별 구분

지불의사금액	응답 수	(%)	비고
0	496	51.1	평 균: 10,782원 최빈값: 0원 최소값: 0원 최대값: 1,000,000원 표준편차: 61,804.6
~1,000원 이하	118	12.2	
~10,000원 이하	268	27.6	
~50,000원 이하	54	5.6	
~100,000원 이하	24	2.5	
100,000원 초과	10	1.0	
계	970	100.0	

4) 가치측정 분석방법 및 결과

① 분석모형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얻는 만족 또는 가치를 의미하는 존재가치는 지불의사액(Willingness-To-Pay: WTP)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불의사액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Hicks 잉여(Hicksian surplus)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불의사액을 추론하기 위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환경질 개선에 대해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가치 추론에 적용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Cameron(1988)에 의하면, CVM은 지출함수로부터 공공재(public goods) 가치에 대한 Hicks적 보상잉여(compensating surplus: CS)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데,⁷⁾ 이를 사회적 일자리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다.

$$CS = E(p, q_0; U_0, Q, T) - E(p, q_1; U_0, Q, T)$$

7) Cameron, M.R, and Carson, R.T., Using surveys to value public good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hington D.C., Resources for the future, 1988.

여기서, p: 시장재화들의 가격벡터

q_0 : 변화이전의 사회적 일자리 수준

q_1 : 변화이후의 사회적 일자리 개선 수준

U_0 : 변화이전의 효용수준

Q: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되는 다른 공공재 벡터

T: 참가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변수벡터

첫 번째 지출함수의 값($E(p, q_0; U_0, Q, T)$)은 다른 조건들이 일정한 경우 최초의 사회적 일자리 수준에서 U_0 의 효용을 얻기 위한 최소 지출수준인 응답자의 현재수입(Y_0)이다. 두 번째 지출함수의 값($E(p, q_1; U_0, Q, T)$)은 Y_1 로, 주어진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경우, 사회적 일자리 수준이 q_1 로 변화할 때 최초의 효용수준인 U_0 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지출수준(Y_1)이다. 즉, 사회적 일자리 변화에 따른 Hicks적 보상잉여는 사회적 일자리 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최대 지불의사액(WTP)이 되고, 이는 Y_0 와 Y_1 의 차이로 표현된다. 그리고 U_0 는 $V(p, q_0; Y_0, Q, T)$ 와 같이 간접효용함수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식은 아래에 제시되는 식과 같이 사회적 일자리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이상경 등, 2001).

$$WTP(q_1) = CS$$

$$= E(p, q_0; U_0, Q, T) - E(p, q_1; U_0, Q, T)$$

$$= Y_0 - E(p, q_1; V(p, q_0; Y_0, Q, T), Q, T)$$

$$= f(p, q_1, q_0, Q, Y_0, T)$$

여기서, $WTP(q_1)$: 응답자의 지불의사액

Y_0 : 현재의 수입

사회적 일자리 변화에 대한 편익인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WTP(q_1)$)은 시장재화의 가격(p), 변화이전의 사회적 일자리 수준(q_0), 변화이후의 사회적 일자리 수준(q_1), 변화이전의 효용수준(U_0),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

정되는 다른 공공재 벡터(Q), 참가자들의 선호(T), 현재의 수입(Y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결국 지불의사액 함수는 사회적 일자리의 변화(q_i)로 인한 경제적 후생 변화를 화폐적 가치로 표현해 주는 가치측정함수로서, CVM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 편익 측정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⁸⁾

이러한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기 위해 WTP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로 응답자 가구의 현재소득이 포함되었고, 응답자의 선호를 나타내는 변수로 개인의 사회적 일자리(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특성이 고려되었다. 또한, 응답자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응답자가 속한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위의 설명변수들로 다음과 같은 선형회귀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로그선형 방정식은 오차항의 분산을 낮추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모형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한 로그선형 방정식 형태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y_i = \alpha + x_i\beta + \epsilon_i$$

여기서, y_i: 응답자의 지불의사액

α: 상수항

x_i: 설명변수들의 벡터

β: 계수벡터

ε_i: 오차항

② 변수구분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를 인지 및 태도, 특성, 개인특성, 가구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아래의 <표 7>은 변수명과 변수의 의미 및 자료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부호를 예상해 보면, 우선 응답자

의 인식과 관련한 문항인 사회서비스 수요, 사회적 일자리 인식수준, 호감도, 참여의향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지불의사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호는 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답자의 가구특성과 관련해서는 가구 전체의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가구원 중에 보호가구원이 있는 경우 더 많은 지불의사액을 부담하려 할 것이므로

<표 7> 지불의사액모형의 변수 설명

설명변수 범주	변수 표시	변수 내용
인지 및 태도 특성	USE	사회서비스이용유무 (서비스이용: 1, 이용하지 않음: 0)
	UPS	사회서비스이용유무 (이용계획: 1, 이용계획 없음: 0)
	DSC	사회서비스 수요 수준(치매노인을 위한 간병서비스, 보육서비스, 저소득층아동의 급식서비스,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교사, 재활용서비스) (매우필요: 5, 전혀 불필요: 25)1)
	KNO	사회적 일자리 인식 수준 (잘 암: 1, 전혀 모름: 4)
	FAV	사회적 일자리 호감도 수준 (매우호감이 감: 1, 전혀 호감 안감: 5)
	PAR	사회적 일자리 참여의향 수준 (꼭 참여: 1, 전혀 참여생각 없음: 5)
개인특성	SEX	성별(남성: 1, 여성: 0)
	AGE	연령
	TEM	직업1(임시일용직근로자)
	NWA	직업2(비임금자)
	UNE	직업3(실업자)
	NEC	직업4(비경제활동인구: 주부, 고령자, 학생 등)
가구특성	FAM	가구원수
	INC	가구소득
	COH	영유아 및 장애인 등 보호가구원 동거유무 (동거: 1, 비동거: 0)

8) 전계서

1) 사회서비스 수요 index: 사회서비스 수요에 관한 5개 문항의 응답값을 합한 수치

로 부호는 양(+)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응답자 개인 특성에 관한 변수의 경우, 성별, 연령에 대해서는 계수들의 부호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결과를 통해 추론하고자 한다.

③ 모형의 추정 및 검정

먼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간의 상호변화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방법을 사용하여 WTP와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 8>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WTP와 PAR의 상관정도가 -0.17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DSC, INC, FAV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SEX, COH, TEM 등의 변수의 경우 WTP와의 상관정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표 8> WTP와 설명변수(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SEX	AGE	INC	FAM	COH
0.028	-0.115	0.106	0.094	0.009
TEM	NWA	UNE	NEC	USE
0.018	0.037	-0.076	-0.104	0.014
UPS	DSC	KNO	FAV	PAR
0.062	-0.121	-0.077	-0.106	-0.178

회귀분석을 수행할 경우 중요한 것은 회귀식이 지니는 가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추정된 회귀모형을 진단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잔차의 독립성 등이 관련되어 있다. 우선 본 자료는 시계열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되었지만, 횡단면 자료에서 공간적 상관관계(spatial correlation)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Durbin-Watson 검정을 수행해 보았다. Durbin-Watson 값은 자기상관관계가 적을수록 2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데, 본 모형에 수행결과, Durbin-Watson 검정 값이 1.87로 나타나 잔차의 자기상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중공선성⁹⁾을 발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흔히 이용되는 추정치

는 허용한계(tolerance)값과 그 역수인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두 가지가 있다.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공차한계값이 1의 값에 근접할 때, 혹은 분산팽창요인이 10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이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장원경·김태균, 2004).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의 경우, 허용한계값이 1에 근접하며 분산팽창요인의 최대값이 2.2이므로 본 연구에서 추정된 모형은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④ 분석 결과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표 9>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WTP = 10.71 + 0.11SEX_i - 0.88AGE_i^* + 0.32INC_i^{**} + 0.38FAM_i + 0.31COH_i + 0.32TEM_i - 0.65NWA_i - 2.19UNE_i^{**} - 1.44NEC_i^{***} - 0.18USE_i + 0.34UPS_i - 1.07DSC_i^{**} - 0.65KNO_i^* - 0.64FAV_i^* - 1.67PAR_i^{***} + \epsilon_i$$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우선, 부호를 예측하지 못하였던 연령변수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불의사액도 감소하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층일수록 사회적 기업 또는 일자리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에 대한 압박감과 가치지향적인 성향을 지닌 젊은 층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95% 유의수준에서 지불의사액을 낮게

9)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란 설명변수간의 선형종속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어느 설명변수가 다른 설명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말함.

제시하였으나,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응답자의 소득수준이 낮아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지불의사액이 낮게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추론된다.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구소득이 많음에 따라 지불의사액은 예상한 바와 같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사회서비스 수요수준이 높으면 지불의사액 역시 높게 제시되었다. 이는 향후 사회서비스 수요분석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하고 동 부문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가치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응답자들은 높은 지불의사액을 제시하였는데,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 국민들의 호감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제고하기 위하여 비전을 마련하고 사회에 보다 바람직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할 의향이 높을수록 지불의사액 역시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회적 일자리의 기대가치(편익)인 지불의사금액의 기대치(E(WTP))는 10,782원으로, 이를 20~69세의 인구수(33,291,529명)로 적용하면 사회적 일자리의 기대편익이 3,589억원으로 추계된다(표 10 참조).¹⁰⁾

10) 본 고에서는 20세 미만의 연령은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가치판단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으며, 70세 미만의 연령대를 생산가능연령인구로 간주하여 분석하였음. 따라서, 본 고에서의 분석대상은 20~69세로 한정됨.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적 일자리의 기대편익을 추정할 수 있음.

〈표 9〉 모형의 계수 추정값

설명변수	계수	S.E	t-value
상수(constant)	10.71	2.28	4.69***
SEX	0.11	0.33	0.34
AGE	-0.88	0.47	-1.88*
INC	0.32	0.10	3.28**
FAM	0.38	0.35	1.10
COH	0.31	0.39	0.79
TEM	0.32	0.62	-1.20
NWA	-0.65	0.49	-1.33
UNE	-2.19	0.63	-3.47**
NEC	-1.44	0.41	-3.52***
USE	-0.18	0.58	-0.31
UPS	0.34	0.30	1.14
DSC	-1.07	0.48	-2.22**
KNO	-0.65	0.40	-1.65*
FAV	-0.64	0.37	-1.74*
PAR	-1.67	0.35	-4.73***
R ²	0.104		
F	7.231**		

주: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한편, NOAA 보고서의 지침에 의거하여 지불거부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불의사액을 추정할 경우,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22,063원이며, 이에 대해 NOAA의 보정계수(0.5)를 곱하면, 11,315원으로 추계된다. 이를 20~69세의 인구수(33,291,529명)로 적용하면 사회적 일자리의 기대편익이 3,767억원으로 추계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사회적 일자리(기업)의 존재가치는 약 3,600~3,800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표 10〉 지불의사액 추정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존재가치

(단위: 억원)

구 분	지불 거부자 포함	지불 거부자 제외
지불의사액에 기반한 존재가치	3,589	3,767

Ⅲ.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기대치인 10,782원을 20~69세의 인구에 적용하여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의 존재가치로 환산하면 3,589억원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존재가치에 기반한 재원이 마련되어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에 해당되는 서비스부문에 투자했을 경우,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의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1. 분석방법 및 범위

본고는 사회적 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 관련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구조를 산업부문간의 기술적인 상호의존관계에 주목하여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의 단계에서 포착하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eontief; 1986, 한국은행; 1993). 이와 같은 산업연관분석은 그 자체로써 경제구조를 총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분석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실용성이 높이 평가

되고 있으며 각종의 경제분석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정영호, 1999)¹¹⁾.

한편, 분석대상부문은 청소 및 소독서비스, 세탁, 가사서비스, 위생서비스 등이며 이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상에 나타난 기타사업서비스, 사회복지사업서비스, 위생서비스, 개인서비스가 해당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정의된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다. 생산유발효과는 특정부문의 투자가 다른 부문에 유발하는 생산액을¹²⁾,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특정부문의 투자가 직간접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액¹³⁾,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특정부문의 투자가 직간접으로 유발하는 취업자수¹⁴⁾를 의미한다.

11) 산업연관분석의 기본 개념이나 분석의 원리 등은 한국은행(1993)을 참조하기 바람.

12) 생산유발효과 $X = (I - A_h^c)^{-1} A_h X_h$

여기서, X: 생산유발액벡터

A_h^c : h부문을 외생화시킨 후의 국산투입계수행렬

A_h : 행렬(I-Ad-h)의 역행렬

X_h : h부문에 대한 투자액

13) 부가가치유발효과 $V = A_h^c(I - A_h^c)^{-1} A_h X_h + A_h X_h$

여기서, V: 부가가치유발액벡터

A_h^c : 항목별 부가가치율행렬

A_h^c : h부문을 외생화시킨 후의 국산투입계수행렬

A_h : h부문의 국산투입계수벡터

A_h : h부문의 항목별 부가가치율행렬

X_h : h부문에 대한 투자액

14) 취업유발효과 : $L = \hat{l}_h - h(I - A_h^c)^{-1} A_h X_h + \hat{l}_h X_h$

여기서, L: 취업유발인원벡터

\hat{l}_h : h부문을 제외한 취업계수(=취업자수/산출액)의 대각행렬

A_h^c : h부문을 외생화시킨 후의 국산투입계수행렬

A_h : h부문의 국산투입계수벡터

\hat{l}_h : h부문의 취업계수

X_h : h부문에 대한 투자액

2. 분석결과

전체 지불의사액인 3,589억원을 위에서 언급한 4개의 부문에 각각 897억원씩(3,589억원/4개 부문) 투자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우선, 경제전체(해당부문 제외)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약 2,278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부문이 약 708억원 정도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개인서비스부문이 약 643억원, 위생서비스부문이 약 526억원, 그리고 기타사업서비스부문이 약 4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전체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3,255억원 정도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4개부문 중 기타사업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복지사업부문이 800억원이 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취업유발인원은 1일 기준 약 10,2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서비스부문이 1일기준 4,22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되어 4개부문 중 가장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며, 이어 사회복지사업이 2,414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위생서비스와 기타사업서비스부문은 각각 1,887명과 1,766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11>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백만원, 명)

	기타사업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위생서비스	개인서비스	계
생산유발액 ¹⁾	40,016	70,847	52,571	64,327	227,761
부가가치유발액	83,012	81,927	77,585	82,933	325,457
취업유발인원 ²⁾	1,766	2,414	1,887	4,225	10,292

1) 해당부문을 제외한 효과를 의미함.

2) 1일 기준

15)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3,765,580명에 이룸.

이와 같이 사회적 일자리(기업)의 존재가치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2> 사회적 일자리(기업)의 존재가치와 이에 기반한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¹⁾

(단위: 억원, 명)

존재가치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취업유발인원(명/1일 기준)
3,589	2,278	3,255	10,292

1) 존재가치 3,589억원이 재원으로 조성되어 사회적 기업에 투자되었을 때의 효과 추정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인의 기대가치와 개별 지불의사액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여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존재가치를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의 개인별 기대가치(편익)는 10,782원이며, 전체 지불의사액은 3,589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함께, 존재가치에 기반한 금액이 조성되어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파급되는 생산유발액은 약 2,278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3,255억원, 취업유발인원은 1일 기준 약 10,2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사업을 통한 기대편익 또는 기대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의 공급으로 각 개인의 만족도나 후생의 증가분을 화폐액으로 환산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명료한 의사결정기준에 관한 토대를 제공해 주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제시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새로운 변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기대가치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즉,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추정된 지불의사액에 일정한 편의(bias)가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첫째, 조건부가치를 통해 추정된 지불의사액은 인위적이고 가상적으로 설정된 상황 하에서 제시한 금액이므로 이로 인한 가상적 편의(hypothetical bias)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응답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인 응답을 할 경우 발생하는 전략적 편의(strategic bias)가 있으며, 셋째, 응답자가 현재 조사대상이 되는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의도와 다른 인식을 가질 경우 발생하는 정보 편의(informa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지불수단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현실성이 떨어질 경우 발생하는 지불수단 편의(payment vehicle bias)가 있을 수 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한 평가액이 구조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Duffield and Patterson(1991)이 제시한 바와 같이, 가상적인 지불의사액이 실제 지불의사액보다 더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건부가치측정을 위한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개방형 질문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들에게 하나의 지불의사 금액수준을 결정하도록 요구하여 무응답이 크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에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오류를 보다 감소시키고 신뢰성있는 추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가지는 제한점을 보완하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노대명, 서구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검토와 전망, 보건사회연구, 제21권 제1호, 2001, pp3~66.
-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2003년도 시행지침, 2003.
-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KDI정책포럼, 제 167호, 2003.
- 이정우·이성립,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제7권 2호, 국제경제학회, 2001, pp79~109.
- 김선희·이승복·윤양수 등,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 평가기준 설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 댐과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4.
- 여준호 등, 환경을 고려한 다목적 댐의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 이상경 등, 용적율규제강화가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 이준구·신영철, 그린벨트의 경제적 가치 측정: 수도권 그린벨트 보존가치를 중심으로, 자원·환경경제연구, 제9권, 4호, 2000.
- 장원경·김태균, 자료분석의 이해와 응용, 대경, 2004.
- 정영호, "보건산업의 산업구조 분석 및 전략적 가치평가," 보건복지포럼 1999: 30: 13~27.
- 최승엽, 댐건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수자원학회지, 35(3), 2002
- 한국은행, "1990년 산업연관표작성보고서," 1993.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3.
- Cameron, M.R, and Carson, R.T., Using surveys to value public good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hington D.C., Resources for the future, 1988.
- Ciracy-Wantrup, S.V., Resource Conservation: Economics and Polic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2.

Davis, R.K. "Recreation planning as an economic problem", *Nat Res J.* 3: 239~249, 1963.

Duffield JW. and Patterson DA., Inference and optimal design for a welfare measure in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Land Economics*, 1991:67:225~239.

Freeman III, A. AM, *Th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 Resource Values: Theory and Methods*, Resource for the Future, Washington D.C.

Leontief, W. "Input-Output Economics,"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s: Proposed Rules". Jan, 7, Part II, *Federal Register*, 15 CFR Part 990, Department of Commerce, pp. 1139~1184.

Summary

Estimating the Existence-Value and Economic Effect of the Social Enterprise

Young-Ho Jung, Dae-myung No, Sukja Ko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y has been creating employment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the poor and the disabled through developing social enterprises(or social firms). The social enterprises which provide useful services to society, and practise fair distribution of profits and social restoration have the considerable expected value and benefi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value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or social enterprises) by applying to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Further, we analyze the propagation effects on the economy from the investment generated by the calculated value of the social enterprise using input-output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verall respondents answer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10,782 Korean won per person for social employment creation(or social enterprises). Applying to the whole population, we have approximately 359 billion Korean won as the existence-value of the social enterprise. Second, provided that our estimates, 359 billion won, are invested in the economy, induced effect on production is around 228 billion won, induced effect on value-added is 326 billion won, and induced effect on employment is 10,292 person as daily base.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provide more clearly information and some criteria for decision-making about social enterprises related policy.